

'밀정' 독주냐 '고산자' 반격이냐...시대극 흥행 대전

추석 시즌은 극장가 최대 대목 중 하나지만 올해 추석 영화 라인업은 다른 해에 비해 약해 보인다. 하지만 송강호가 열연을 펼친 '밀정'이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고산자'와 애니메이션 '달빛궁궐' 등 한국영화도 약진을 준비중이다. 그밖에 새롭게 리메이크된 '벤허' 등 화제작을 소개한다.

헐리우드 시대극 '매그니피센트'
판타지 애니메이션 '달빛궁궐'
'벤허' 리메이크작도 눈길



위 '달빛궁궐' 아래 '벤허' 좌로부터 '매그니피센트' '겨울나라의 엘리스' '밀정' '고산자-대동여지도'

밀정

개봉 후 12일까지 250여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달콤한 인생'의 김지운 감독 작품으로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의열단과 이를 추격하는 일본 경찰 사이의 암투를 그린다. 특히 항일과 진일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인물들의 미세한 감정에 포인트를 맞췄다. '조용한 가족', '반칙왕' 등에 이어 4번째 함께 호흡을 맞춘 김지운 감독과 송강호의 조합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올해 '부산행'으로 천만배우에 합류한 공우와 한지민, 신성록 등이 출연한다. 카메오로 얼굴을 보인 이병헌의 존재감이 돋보이며 일본인 경찰로 출연한 엄태구의 연기에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15세 관람가.

고산자-대동여지도

박범신 작가의 소설 '고산자'를 바탕으로 만민을 위해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전국 팔도를 누빈 김정호의 삶을 다루고 있다. '실미도', '투깝스' 등을 만든 강우석 감독의 20번째 작품이다. 지도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주인공 김정호의 발걸음 따라 우리나라 아름다운 사계절을 영상에 담아냈다. 국내 영화 최초 스크린에 담은 백두산 전지를 비롯해 북한강, 황매산, 여수 여자만, 마라도 등을 만날 수 있다. 김정호 역은 차승원이, 그의 지도를 독점하려는 흥선대

원군은 유준상이 맡았다. 김인권 등이 맛깔스런 조연 연기를 선보인다. 전체관람가.

매그니피센트

영화 '황야의 7인'을 원작으로 하는 서부영화. 국내에서는 이병헌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79년, 평화로운 마을 로즈 크릭을 무력으로 점령한 보고 일당의 탐욕적인 악행과 착취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쫓겨나게 된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엠마는 치안 유지를 가장한 현상범 전문 헌터 샘 치콕을 찾아가 전 재산을 건 복수를 의뢰한다. 샘 치콕은 도박꾼 조슈아 패러데이, 명사수 굿나잇 로비쇼, 암살자 빌리 락스를 비롯, 무법자, 추격자 그리고 인디언 전사까지 7인의 무법자들을 모아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프랫, 에단 호크 등이 출연한다. 15세 관람가.

겨울나라의 엘리스

지난 2010년 개봉해 전 세계 10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후속작이다. 영국 동화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를 더했다. 기괴하지만 아이들을 넘어서 어른들의 상상력까지도 자극하는 영상미는 속편이 자랑하는 최첨단 시각효과와 결과물이다. 이상한 나라로 돌아가게 된 엘리스가 위기에 빠진 모자

장수를 구하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며 겪는 모험을 그렸다. 팀 버튼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니 데프, 앤 헤서웨이, 미아 와시코브스카, 헬레나 본햄 카터 등 호화 출연진이 눈길을 끈다. 12세 관람가.

벤허

1959년 아카데미 최초 11개 부문을 석권하며 세기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했다. 로마 시대 절친의 배신으로 왕족에서 일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 벤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전자 경주, 해상 전투 등 사실적인 영상미가 눈길을 끈다. '윈티드'의 티무르 베크맘베토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노에 12년'으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존 리틀리가 각본을 맡았다. 잭 휴스턴을 비롯해 토비 켈벨, 모건 프리먼 토로가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달빛궁궐

13세 소녀 현주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달빛 궁궐로 발을 딛게 되면서 벌어지는 궁궐 판타지 어드벤처다. 정확한 고증과 치밀한 취재를 통해 부용지, 인정전, 낙선재 등 창덕궁과 장영실의 자취를 영화 속에 고스란히 재연돼 눈길을 끈다. 또 배우 이하니, 권율, 김슬기 등의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아 작품에 완성도를 더했다. 전체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포 선라이즈'



'포레스트 검프'

놓쳤거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만나보세요

CGV 광주 터미널·상무점, 광주극장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기존 상영작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눈길을 끈다. CGV(광주 터미널·상무)에서는 '추석영화 기획전'을 진행한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 상영작은 모두 25편으로 각 극장의 시간표를 확인하면 된다. 로버트 드 니로의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비롯해 '인생은 아름다워', '세계', 알프레도 히치콕의 작품 등을 포함해 '도리를 찾아서', '주토피아' 등도 만날 수 있다. 또 '세 열간이', '미비포 유', '인턴', '걸어도 걸어도' 등이 상영된다. 다양한 한국영화들도 만날 수 있다. '아가씨 확장판', '내부자들 : 디 오리진', '살인의 추억' 등이 상영작이다. 광주극장에서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리처드 링클레이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이 동시에 영화팬들을 만난다. '비포 선라이즈'는 기차 여행 도중 만난 두 남녀의 하룻밤 낭만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개봉 20주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되며 '비포 선셋'은 2004년 9년만에 두 사람이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또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지능과 신체적 조건을 가진 주인공이 세상의 편견을 딛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린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많은 이들에게 '카르페 디엠'(인생을 즐겨라)이라는 단어를 기억시킨 '죽은 시인의 사회'도 상영된다. 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확장판'은 기존 145분 분량에서 23분 가량 늘어났으며 2009년 작 '싱글맨'은 구찌 수석 디자이너 출신 톰 포드감독 작품으로 콜린 퍼스에게 베니스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